



# 한국교회를 위한 자살예방

## GuideBook

길 - 사랑 · 생명 · 회복

“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사회학연구소

##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



2009년 한국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은 한 해 동안 15,413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로 죽은 것을 의미한다. 육군 1개 사단이 약 1만 명이다. 즉, 한 해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육군 1.5개 사단에 이른다는 것이다. 요

즘 초등학교 1개 반이 3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에 역시 자살로 죽는 사람이 1.5개 반 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틀에 초등학교 교실 3개씩 없어진다고 본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는지 실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에 이어서 사망원인 4위이다. 이 뒤로 당뇨병, 교통사고, 호흡기질환, 간질환 등이 뒤따르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뇨병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제 자살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로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적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 역시 이 자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웬만한 교회들은 다 교회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장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 역시 교회에서 거부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살로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할 때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살은 큰 죄이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죄를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판결하신다는 것이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독교가 왜 유독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단호하게 지옥이라고 선언하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해될 때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와 고난에 대한 문제이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죽겠다는 이유를 찾고 있지만, 한편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회자의 설교가 생명의 끈이 될 수 있고, 서로를 보듬는 소그룹의 활동이 죽음에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살이 만연된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생명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죽어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디아코니아이며 봉사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 일러두기

본 가이드북은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떠나 실제 교회 성도가운데 일어나는 자살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며, 자살 징후가 있는 성도들과 실제 자살자의 유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조성돈·정재영 지음, 예영커뮤니케이션)와 『자살은 죄인가?』(김기현 지음, 초이선교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교지침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사회학연구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실천신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자살에 관한 / 설교지침 /

### 1. 자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것을 신앙 하나로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믿음이 없어서 자살했다거나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살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살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심한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다.

### 2.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자살로 사망하는 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유가족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중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자살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했길래 죽기까지 했느냐’는 언급은 남은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언어사용이다. 안 그래도 가족의 죽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우울증 환자와 자살 예비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회 내에서 자살자를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하고 그 유가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3. 자살의 방법이나 장소, 자살의 경위는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특히 자살의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하며, 같은 의미에서 자살의 장소나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 4.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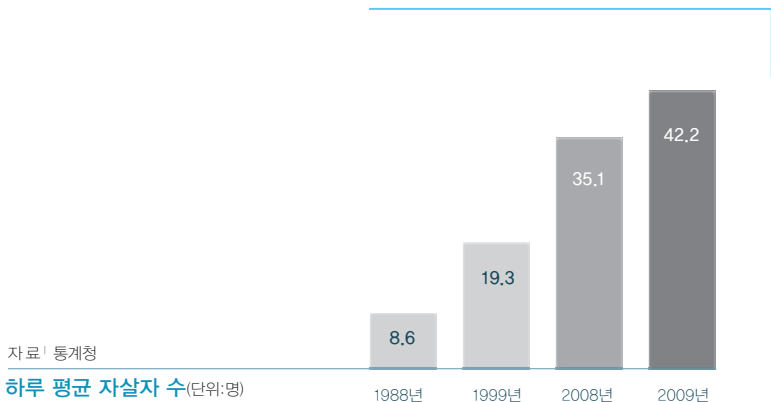
유명인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자살을 정당화해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미화하거나 영웅적 결단으로 설명해서도 안된다. 그들의 죽음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자살로 죽을 수 있는 평균 42명 중 한 명이며, 2009년 자살로 죽은 15,413명 중 한 명일 뿐이다.

#### 5. 자살을 고통해결의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자살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자살을 어떤 한 문제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은 자살에 대한 현실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살은 남겨진 문제들의 시작일 뿐이다.

#### 6. 흥미중심이나 흥미로운 예화로 사용하지 않는다.

혹 설교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자, 또는 세태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자살의 문제를 자극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들을 경계해야한다.





### 1.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강조점들을 언급하고 그것을 자살의 문제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특히 생명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한다. 나의 생명이라도 그 행위는 이미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더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자살은 신에 대한 반역이다. 또한 생명을 쉽게 대하는 언어적 태도도 피한다.

### 2.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 3.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한다.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상담소나 상담전화 등을 소개하고 주보에 기재하여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4. 자살의 현실을 설명한다.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유족들의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알린다. 특히 자살은 이기적인 선택임을 표현한다.

### 5. 자살 징후들을 소개한다.

자살의 징후들을 소개하여 주변에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도록 한다.

### 6.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한다.

### 7. 우울증을 영적문제가 아닌 정신보건의 문제로 소개하고 치료를 권한다.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를 소개한다. 특히 우울증을 영적문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치료해야 할 질병임을 확실히 한다.

연령별 자살자 수 출처: 통계청 2009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2,011	10,653	12,174	12,858	15,413
0-9세	1	1	1	1	4
10-19세	279	232	309	317	446
20-29세	1,361	1,042	1,557	1,643	1,807
30-39세	1,922	1,478	1,952	2,119	2,642
40-49세	2,349	2,089	2,231	2,444	2,856
50-59세	1,753	1,805	1,773	1,970	2,597
60-69세	2,000	1,734	1,807	1,845	2,074
70-79세	1,512	1,492	1,684	1,633	1,899
80-89세	736	696	749	799	964
90세 이상	98	84	111	87	114

연령별 사망원인 출처: 통계청 2009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위	자살	자살	자살	암	암	암	암	암
2위	교통사고	교통사고	암	자살	자살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3위	암	암	교통사고	간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 자살자를 위한 장례예식



한국사회에서 자살은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일어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계와 기독교 신학은 상대적으로 교리적 해석이나, 전통 등의 이유로 자살자와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예방활동이나, 장례예식 등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자살자 유가족들을 교리적 이유로 정죄하며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무관심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살자와 그 유가족을 방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목회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목회적 차원에서 자살자 가족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지닌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장례예식을 통해서 가족을 보내는 의례(ritual)가 필요하다. 죽음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며, 죽음이 자살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면 보다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생을 마감하는 방법이 자살일 경우에 이에 반응하는 교회는 늘 불편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자살을 사회적 현상이나 개인의 정신적 질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에 대한 살인이라는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는 자살자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죄의식과 수치심을 그들의 삶에 깊이 각인시키게 되었다. 본 장례예식은 신학적 논쟁보다는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족들을 위한 의례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자살자를 위한 장례 예식모범을 제시한 것이며,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 박종환 교수(실천신대원 예배학)

### 장례예식

☐ **타종 / 장례식사** ..... 인도자

: 타종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원

☐ **기도송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인도자가 조용한 기도를 하거나, 다함께 기도송을 부른다.

피난처 있으니(새 70장 / 통 79장)

\*주여 주 예수여(Jesus, remember me)



### ☐ 초대의 말씀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다함께〉 주님은 거룩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주님의기도 / 영창 ..... 다함께

새 636장(통 548장)

### ☐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 ..... 다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질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 ☐ 찬양 ..... 다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새 637장)  
\*주를 찬미하나이다(Confitemini Domino)

### ☐ 시편 교독(또는 낭독)

#### 시 46편 1~3절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 시 136편 1~9절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음서 낭독** : 다음 구절중 하나 선택

- (마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설교** ..... 인도자 및 설교자

**묵상** ..... 다함께  
 고인의 삶에 대한 회상 ..... 유가족 중 한명

**찬양** ..... 다함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새 618장)  
 \*오 주님(O Christe Domine Jesu)

**중보 기도**

: 고인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의 형식으로 드리는 시간.  
 간단한 두 문장정도의 기도를 각각 드린다.

## | 속도와 파송 |

평안과 소망 중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 장례기도문 |

생각과 판단이 저희와 같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여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혜사 성령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절망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중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한 생활, 산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진실된 사귄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주님의 나라로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보여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장례절차 및 과정 |

자살자의 장례식의 경우는 복잡한 사고조사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유가족의 아픔이 더욱 크며, 당황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하며, 더욱 큰 관심과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예배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부탁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회에서 먼저 유가족들의 상황을 배려하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며, 장례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혜롭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자의 대부분은 화장을 하기에, 화장예식도 간단하게 진행하며, 추도일을 교회적으로 기억해 위로하는 것도 유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 11가지 징후 /

1.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슬피질 때
2. 삶의 의욕이 사라져 무엇을 해도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3. 부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4. 자살에 쓰이는 약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할 때
5. 어떤날은 기분이 매우 좋고 어떤날은 심하게 우울해지는 등 감정의 기복이 클 때
6. 사소한 복수에 연연하는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7. 식습관, 수면습관, 표정, 행동 등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때
8. 운전을 험악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하는 등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9. 갑자기 침착해질 때(자살을 결정하면 차분해진다)
10. 학교 생활, 인간 관계, 직장 생활, 이혼, 재정적 문제 등 삶의 위기를 느낄 때
11. 자살과 관련된 책에 흥미를 느낄 때

### 자살 경고 신호

1.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직간접으로 이야기를 한다.
2. 가족의 반응이 없으면 성직자나 의사를 찾는다. 평소의 신앙생활과는 달리 인생 문제를 상의하고,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며 의사를 찾는다.
3. 자살의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식욕, 성욕을 잃어버린다.
4. 자살 결단을 내리고부터 수면 형태가 바뀌어 잠을 못 자던 사람은 폭 자고, 잠을 잘 자던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5. 유서를 작성한다.

6.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먼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한다.  
개인 비품이나 서랍을 정리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이발 등을 한다.
7. 아껴 온 물건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8. “이제 나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먼 여행을 하고 싶다.”  
“그 동안 고맙다” 라는 등의 이별을 예고하는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한다.

### 청소년 자살의 위험 징후

1. 행동이나 성격이 갑자기 변할 때
2. 뚜렷한 이유 없이 깜짝 깜짝 놀라거나 안절부절, 식사거부, 불면증을 호소할 때
3.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얘기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쓰거나 자주 언급될 때
4. 가족 중에 자살 미수자나 자살자가 있는 경우
5. 성격이 충동적, 폭발적, 자기 파괴적 경향이 있을 때
6.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참여할 때

### 타인의 자살 충동이 느껴질 때 지켜야 할 6가지 수칙

1. 혼자 두지 않는다. 주변에 총, 칼, 약처럼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방치돼 있을 때 더욱 위험하다.
2.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119나, 지역응급센터, 의사, 경찰,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3.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엔 차분하게 대화를 한다.  
시선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자살 방법 등의 자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졌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둔다.
5.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6. 자살을 시도했을 땐, 즉시 앰블런스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도한다.

## 자살예방, 자살유족들을 도우려고 하는 기관(가나다순)

- \*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 [www.mentalhealth.or.kr](http://www.mentalhealth.or.kr) 1577-0199
- \*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 [www.mindsave.org](http://www.mindsave.org)
- \* 생명의 전화 | [www.lifeline.or.kr](http://www.lifeline.or.kr) 1588-9191
-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http://suicide.blutouch.net> 1577-0199
- \*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 [www.sncmhc.com](http://www.sncmhc.com)
-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 [www.csp.or.kr](http://www.csp.or.kr) 031-214-7942
- \* 안산시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 <http://ansanmhc.or.kr>
- \* 원주시정신보건센터 생명사랑위기관리팀 | <http://loveme.yonsei.ac.kr>
- \*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 [www.icmh.or.kr](http://www.icmh.or.kr)
-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 \* 천안시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 [www.cancercenter.or.kr](http://www.cancercenter.or.kr)
- \* 춘천시역사회정신건강네트워크 | [www.mindnetwork.or.kr](http://www.mindnetwork.or.kr)
- \* 한국자살예방협회 | [www.suicideprevention.or.kr](http://www.suicideprevention.or.kr) 02-413-0892~3
-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 상담실 | [www.counselling.or.kr](http://www.counselling.or.kr)
- \* 화성시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 [www.hamind.or.kr](http://www.hamind.or.kr)

### 자료 출처

- ① <표지이미지>는 브라질자살예방협회([www.cvv.org.br](http://www.cvv.org.br)) 홍보 포스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 ② <2장 자살에 관한 설교지침>은 2008년 11월 6일에 개최된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출판기념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된 것으로 통계는 현 시점에 맞게 수정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 ③ <3장 자살자를 위한 장례예식>은 2011년 6월 27일~28일에 개최된 “제2차 자살예방학교”에서 발표된 것으로 본 가이드북에는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④ <4장 자살예방을 위한 참고가이드>는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조성돈·정재영 지음, 예영커뮤니케이션)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⑤ 본 가이드북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로 인용하실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본 가이드북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 자료실에서 PDF 자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세중,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선생 등을 통해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2011년 기윤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정직윤리운동** '목회자윤리운동, 사회이슈실천운동(전월세값동결운동 등)' /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교회신뢰운동**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재생종이사용캠페인, 지역사회와함께하는교회운동'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치윤리운동** "기윤실 포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장규(상임,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목회사회학연구소

club.cyworld.com/kpsi

목회사회학연구소는 목회사회학(Pastoral Sociology) 학문을 통해서 신학과 사회학의 간학문적 대화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소는 다양한 저술활동과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현대인의 종교성, 지역공동체, 자살예방 등에 대한 연구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발간 도서**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예영, 2007),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교회(예영, 2008),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예영, 2008),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예영, 2010)

☞ **소장** 조성돈(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huioscho@naver.com)

☞ **부소장** 정재영(실천신대원 종교사회학 교수)

☞ **기획실장** 장진원(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박사)



자살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살율도 불신자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살자를 정죄하기에 바빴지 그들을 자살의 함정에서 구해내지도, 예방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한국 교회가 자살 예방의 적극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책 “자살 예방 가이드”로 이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이 가이드 북을 강추합니다! **자살 예방 가이드 동역자.**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죽음의 가장 극적인 유형에 ‘자살’이라는 인간 존재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관 자살예방가이드북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과 자살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영문 단장**(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이 책은 자살사고나 충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와 장례예배 지침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자살로 인해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권 교수**(연세대학교 신학과)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 02-794-6200 Fax | 02-790-8585 E-mail | cem@hanmail.net



본 가이드북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증이 (양코르지 사용전고지55%)에 인쇄하였습니다.

